

ISSB 최종 기준 및 향후 과제

일시: 2022년 10월 25일 13:30~15:30

주최/주관: 한국회계기준원, IFRS재단

- | **기조연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
- | **발표**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 | **토론** 백태영 ISSB 韓 위원 (좌장)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Executive Summary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에 따라 국내 산업 및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최초 기준서 확정에 담긴 도전 과제들과 향후 방향성을 ISSB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자리임

Key Takeaway 1

ISSB 향후 전략

-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은 기존의 상호 운용 가능성과 중대성 평가 용이성 등을 보완해서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공시 기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공개 초안 피드백 브리핑을 통해 Scope3 공시의 어려움과 공시 위치에 따른 소송 리스크, 산업별 기준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 구체적인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다시 의견 취합을 거치겠다고 발표함

Key Takeaway 2

ISSB 기준에 대한 제언

- 이인형 선임연구원은 상장사가 공개한 전체 ESG 정보량에 비해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보량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중대성 평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광일 과장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기업의 수용 가능성과 국가별 규정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들며 향후 글로벌 공시 기준 베이스라인 제정에 반영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힘

Key Takeaway 3

한국 기업 맥락에 따른 제언

- 송영훈 상무는 사업보고서 오기재 및 미기재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한국 기업 환경을 짚으며 공시 위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함
- 조영준 원장은 한국의 사회적 특성 반영, 유예기간 이후 점진적 적용, 중소기업을 위한 공시 기준 완화 등 ESG 공시 부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함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 기조연설

전 세계 경제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함. ISSB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용어를 만들자는 노력이 관철되고 있음. 관련해서 향후 전략의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해 기술하고자 함

- 1) **공시와 관련된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 마련:** 상호 운용 가능한 공통어의 제정을 목표로 함. IFRS재단과 ISSB는 회계 관련 용어들이 모두 상호 운용적이고 시스템이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고대함
- 2) **투자자 니즈에 주목:** 기업이 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나아가고 투자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려는 니즈를 충족하고자 함.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고도화된 유용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포용성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및 역량 배양 관련 도구를 지원할 것임
- 3) **중대성:** 변화하는 이슈의 중대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작업할 것임. S1과 S2를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임. 이를 위해 기후 기준을 확대해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임
- 4) **기존 도구 반영:** TCFD, SASB, CDSB 등의 국제 기준과 통합해서 기준 준수를 용이하게 할 것임
- 5) **재무적 중요성의 강조:** 이중 중대성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적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임. 은행, 대출 기관 등의 투자자들이 IFRS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작성되게 하는 것이 목표임. 비재무적 중요성에 대한 공시를 위해서는 GRI와 MOU를 체결해서 중첩되지 않는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발표

2022년 3월 31일에 최초로 발표한 두 건의 공개 초안은 글로벌 기준선과 관련된 내용임.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이용함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의미한 비재무적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옳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얻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인 S1은 기업들이 어떠한 내용을 공시하는지 결정하는 지속 가능성 공시 형식을 정리한 것임. 보고 시점과 정보 기재 위치와 같은 요건을 포함함.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기준 공개 초안은 TCFD 공고사항과 SASB 기준을 바탕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요인의 공시 형태를 담고 있음

공개 후 1400건 이상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공개 초안이 적시에 발표되었다는 것에 긍정적 피드백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국제적 공용어 제정이라는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023년 상반기에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또 다시 취합할 예정임

피드백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임

1. 회계가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진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함
2. 각 국별 기준과 상호 운용성이 담보되어야 함

(S1 피드백 및 대응)

- 공개 초안 적시 발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음
-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지침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이 있었음. 사용하는 언어(“중대성”과 “유의성”)의 모호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임

-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발표하는 것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완 방법을 구상하고 있음

(S2 피드백 및 대응)

- S2의 빠른 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기준 적용에 필요한 상세한 지침과 예시 제공을 요구함
- Scope3 관련 배출가스 정보에 대한 공시 어려움을 균형있게 감안해서 의무화에 유예 기간을 두고 소송 관련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정할 것임
- 산업별 기준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음. 이를 위해 Appendix B를 제공할 예정
- 시나리오 분석의 생소함과 정의의 모호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한국거래소 송영훈 상무
토론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 매체의 문제)

현재 ISSB는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보고서에 공시 내용을 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나라마다 각국 증권 규제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업 보고서 제출 기간이 각각 다름. 우리나라는 3개월 내, 영국은 상장사 4개월과 비상장사 6개월, 미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더 다양함. 국가마다 재무 보고를 하는 기간이 다른데 만약 비재무 정보를 동시에 보고하게 된다면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 동시 보고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함

(법정 공시의 어려움)

사업보고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있어서 상장 회사나 공개 회사 입장에서 까다로움. 우리나라에는 5년 이하 징역,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의 형사상 책임도 있음. 사업보고서상 법정 공시로 끌어오면 기업의 부담이 삼중고로 막중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원칙주의 공시이기 때문에 중요성 판단은 기업이 경우에 맞게 따로 해야 함. 합리적 투자자 기준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중대성 평가를 둘러싼 엄청난 분쟁과 소송이 있음. 비재무 정보 관련 내용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이 특징임. 재무 정보처럼 라인 아이템으로 제시하는 것도 때로 부실 기재 문제가 발생하지만 비재무 정보 관련해서 기업이 구체적 정보의 공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TCFD에서 제시했던 시나리오 분석법임. 앞으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실현이 됐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성 관점에서 선별 공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감독 기관의 업무 과중)

사업 보고서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전부 부실 공시 여부를 판별해서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

임. 상장사 기준 3000여 개 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 보고서를 제출함. ESRS(EU 지속가능성보고 표준) 같은 경우 공시 기준만 400페이지가 넘어감. 공시하는 측에서도 어렵고 감독하는 측도 어려움. 과거에 NFRD할 때도 사업보고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별도 보고서를 허용함. 이런 문제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봄

(글로벌 표준으로서 방향)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ESRS는 이중 중요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ISSB나 미국 SEC는 재무 중요성이 중심임. ISSB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논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공시기업의 기업가치평가)

기업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음.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업 내용,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명확한 기업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음. 공시 기업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보다 기업가치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이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정보 제공 기준)

IFRS가 제시하는 기준이 없을 시 기준에 존재하는 기준을 원용할 것으로 천명함. SASB의 산업별 중요도 기준을 따라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이 자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공시 방법에 갖는 막연함 해소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임

(중대성 판단 방법)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GICS(글로벌산업분류기준)가 아닌 새로운 자체 분류 SICS(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는 77개 산업 분류 체계로 개별 산업마다 별도의 기준서를 산업적 특성을 마련한 공시 주제, 지표와 측정단위, 기술 프로토콜, 활동 지표와 측정단위로 마련함. 블룸버그는 SASB 코드와 자체 BBG 필드 코드를 대응시키는 SASB to Bloomberg Field Mapping (Version2) 파일을 통해 산업별 공시 주제 및 해당 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블룸버그 지표를 제공함

(삼성전자의 중대성 판단 프로세스 예시)

- 1) 삼성전자는 SICS 분류에 따르면 TC-HW(Technology & Communication 섹터 내 Hardware 산업)임
- 2) TC-HW 산업의 공시 주제는 제품 안전, 직원 다양성과 포용성, 제품 생애주기 관리, 공급망 관리, 소재 구매이고, 이와 연관된 지표를 식별함
- 3) SASB to Bloomberg Field Mapping 파일에

서 식별된 SASB의 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Bloomberg 지표(BBG Field Name)와 해당 인식 ID(BBG Field Code)를 식별함
4) 식별된 ID를 Bloomberg 함수의 변수로 입력하여 해당 지표의 공개 여부 확인함

해당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0년 자산 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체의 ESG 관련 정보량 평균은 46%지만 블룸버그가 중대성이 높다고 확인한 정보량 평균은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대성 측면에서 분발할 여지가 있음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토론

대내외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ESG 평가 지표들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ESG 평가기관간 등급 상관관계수 평균이 0.54에 불과함. 재무적 지표의 경우에는 0.99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음. 따라서 ESG 정보 공개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가장 선호함

ESG 공시 부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함

- 각국 법률 체계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국가별 특성 반영이 필요: 인종 다양성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 특성이 나라별로 달라 기준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의문임
- 유예기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함: ESG 공시를 시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임
- 공시 위치가 부담스러움: 사업 보고서에 들어갈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짓의 기재에 의한 배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음. ESG 정보는 금융 정보보다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기재는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임
- 중소기업에 위한 차별화된 공시 기준 필요: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ESG 경영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인력 배치 상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다른 기준과의 통합 고려: ISSB 기준이 글로벌 ESG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나 SEC의 기후 공시 기준과 적극적으로 통합을 논의해야 할 것임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토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시와 같은 자본시장 내 인프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 더 양질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금융위에서 2021년 1월에 2025년부터 지속 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상장사에 대해서 의무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음. 현재는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업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할지 불분명하고 투자자들은 기업 정보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 한국 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수출 기업이 많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ISSB와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 베이스라인 제정이 큰 의미를 가짐.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첨언하고자 함

- 1) 기업의 수용 가능성: Scope3 공시나 중소기업 대상 완화 규정과 같이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별 규정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성: 각 국 규정 및 관행이나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